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생각

09 + 10
SEP + OCT
2019 vol.2



특집

미래기술과 기독교세계관

청년, 삶을 고민하다 원자력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단상

문화로 세상 보기 시대의 도전에 직면한 미술가

은전한 지성 2019 춘계학술대회 주목할 만한 논문(II)



ISSN 2671-8731

09

Contents

SEPTEMBER+OCTOBER · 2019

시선 세계관과 기술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격려와 권고에 감사드리며 신국원	04

특집 미래기술과 기독교세계관

자족을 위한 경작 장수영	06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기술 문명 정문열	08
기술사회 속 교회의 과제: '어떻게'에서 '무엇'을 넘어 '왜'라고 묻기 손화철	10
미래사회 의료상 : 기대와 우려 김창원	12

사람 사이 과학자와 기독교세계관, 윤완철 교수	14
------------------------------	----

섬김의 자리에서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어제와 오늘 유재봉	18
------------------------------------	----



창간호 | 2019. 9+10월호 | 제2호(통권 217호)

〈신앙과 삶〉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시론

원자력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단상 류진호	20
뇌 과학,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다 정이레	22
청년 일터 이야기	
월급쟁이 그리스도인의 고민 모아론	24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물신(物神)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기 추태화	26
---------------------------	----

예술을 보다

시대의 도전에 직면한 미술가 서성록	28
-----------------------	----

책을 보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최현일	30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조은혜	32
〈초대교회사 다시 보기〉 김도형	34
〈기술 체계〉 이상민	36

온전한 지성

2019 춘계학술대회 주목할 만한 논문 소개(II)

우리나라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김현숙	38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 개발 김보경	39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이은실·고우련	40

교회 路

‘함께하는 교회’ 복음세계관 아카데미 소개 :

신행일치의 삶을 위하여 임태환	42
수로 소감문 라소영	43

소식

사무국 / 관련기관	44
------------	----



세계관과 기술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영국 과학자 니덤(Joseph Needham)은 <중국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이란 방대한 책(7권)을 썼다. 거기서 그는 중국은 종이, 화약, 인쇄술, 나침반 등 인류 문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술을 서양보다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부터 서양에 뒤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는 중국에 상인들이나 기술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사회의 신분위계가 사농공상(士農工商) 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공인(工人)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기술을 천시한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술’(techne)은 자연을 불완전하게 모방한 것으로 ‘도시’(polis)가 아닌 시골에서 천민이나 노예가 육체노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이성을 사용하여 자연을 연구하는 지식인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대우받았다. 칸트도 이성의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 형성되는 ‘본래적인 통일성’(architektonische Einheit)에 비해서 ‘기술적인 통일성’(technische Einheit)은 자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가공품으로 격하하였다. 기술이란 자연, 이성, 본질에서 벗어나 자의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는 인위적인(artificial) 수단으로 경시한 것이다.

니덤이 과학이나 기술 문제를 사회 경제적 상황에 기초해서 설명한다 해서 마르크스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비판이 공정했는가는 별개로 니덤은 사회 경제적 상황이 과학발전을 결정한다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술을 무시하는 그 사회 경제적 상황이 왜 생겨났으며 16세기 이후의 유럽에서는 왜 그와 다른 사회 경제적 상황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따져 보았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그는 해당 지역의 ‘세계관’이 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공산주의가 지배하기 전까지는 ‘유기적 세계관’(organismic world-view)이 지배했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그 자체로 신성하며 모든 부분은 모든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도 우주를 반영하는 하나의 소우주(microcosm)로 몸의 사지(四肢)는 4계절의 모형이며 두 눈은 해와 달의 모형이라고 생각했다. 잘 알려진 “개인이 수양에 힘쓰고, 가정을 잘 단속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천하가 태평해진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명구나 “하늘(자연)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順天者興, 逆天者亡)는 주장은 모두 유기적인 세계관을 잘 반영한다.

고대 그리스에도 유기적 세계관이 지배했다. 기술은 자연을 모방한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요리는 태양에게, 방직은 거미에게 배운 것이라 했다. 자연은 본래적이고 기술은 인위적인 것이므로 열등한 것으로 취급했고, 기술로 자연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무엄하므로 천벌을 받는다고 본 것 같다. 밀랍으로 새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태양열에 녹아 떨어져 죽은 이카루스 신화가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성경은 기술을 경시한 고대 문화의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출애굽기에 성막, 제단, 기물을 제조한 기술자들이 언급되는데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학자였으면서도 육체노동을 수행함으로 당대의 그리스 지식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다른 고대문명들과는 달리 성경은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종교와 현대과학의 출현>(Relig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을 쓴 호이카스(H. Hooykaas)는 16세기에 현대과학이 출현한 것은 종교개혁이 그 때까지 서양문화를 지배했던 유기적 세계관을 '기계적 세계관'(mechanistic world-view)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신성하거나 생명을 가진 유기체가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질세계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이후 과학자들은 그 전과는 달리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현대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발달한 현대과학이 기초가 되어서 과학기술이 발전될 수 있었다. 중국의 기술(technique)은 주로 축적된 경험과 임기응변의 재능에 의한 것이라면, 서양의 과학기술(technology)은 자연과학의 지식을 응용한 것이므로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뛰어났던 중국의 기술이 16세기부터 서양에 뒤지기 시작한 것은 자연과학의 기초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땅을 파면 평토제(平土祭)를 지내야 하는 동양과 달리 종교개혁 이후의 서양은 "땅을 정복하라"는 성경의 명령은 기술발전을 더욱 촉진했을 것이다.

과학기술 때문에 생태환경 오염이 일어났고, 기독교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 화이트(L. White Jr.)는 오늘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기독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다만 풍요와 사치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은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신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한 프로메테우스가 되고 말았다. 기술이 돈을 벌게 하고, 돈이 있어야 새 기술을 개발하는 순환작용이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한 도구로 기술을 개발하고 감사와 절제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그 자체가 목적으로 둔갑하고 있다. 기술은 현대인의 이상으로 등극하고 있어 기술개발과 발달이 주어진 세계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세계관을 결정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점점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을 가진 세력으로 변신하여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마저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업자와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기술로 충족되는 욕망은 참다운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직업만족도가 1987년의 61%에서 2016년에 51%로 떨어졌다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대처해야 할 무서운 세계관 하나가 형성되고 있다.

FAITH & LIFE



✍️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학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격려와 권고에 감사드리며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창간호가 나가고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지난호에 대해 여러분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 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팔순에도 여전히 기독교학교 운동을 이끌고 계신 김정섭 장로님(전 영락중교장/새문안교회)은 “<신앙과 삶>이 많은 분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공동체와 소식지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시는 대전 새로남교회의 오정호 목사님도 긴 격려의 전화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기관지가 되길 당부하셨습니다. 직장사역연구소의 방선기 목사님은 <신앙과 삶>이 넓은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목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세계관 운동이 자칫 지식인의 전유물처럼 되는 것을 늘 우려하던 맥락과 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순범 전 KBS 정책본부장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많은 대학원과 대학생들이 이메일과 카톡과 문자를 보내왔구요.

제가 가장 기뻐던 것은 저희 기관지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분들의 격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대 최점일 교수님(수영로교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규현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세계관을 배운 이래 40년 가까이 홀로 학생들에게 세계관 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마추어라 이 책에 실린 글들을 빠짐없이 읽으며 배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편집을 돕는 박영주 교수님은 오랫동안

기독교 대안학교 책임자셨습니다. 그 분 역시도 저희 소식지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의 ‘교육’의 소스였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미국에 계신 강영안, 캐나다의 양승훈 두 교수님을 비롯해 여러분이 격려와 함께 상세한 권고도 주셨습니다. 특히 표지 디자인이 조금 이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편집위원들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처음 일을 맡아 주저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대를 접하면서 이 소식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글들을 많이 실게 되어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이 글들이 모두의 삶이 담긴 글이라는 것입니다. 늘 통찰 가득한 글을 써주시는 이사장님께 감사합니다. 특집 첫 쪽지 장수영 교수님은 기술과 산업, 특히 ‘적정기술’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이를 통해 선교지와 낮은 곳을 섬기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정문열 교수님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독자적으로 써름해 오신 분입니다. 다른 일로 통화한 후 기꺼이 귀한 글을 주셨습니다. 손화철 교수님은 기술철학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활발한 강의활동을 통해 전국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윤완철 교수님은 예상대로 인터뷰를 극구 사양해 설득이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임원과 회장으로 동역

회를 섬겨준 분입니다. 특집 주제인 과학기술 영역의 전문가로 기독교적 안목에 오랜 고민을 해왔고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던 저를 찾아와 속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복귀할 것을 권하던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임원수련회를 갔을 때, 했던 말도 생각납니다. “지금 다들 바빠서 힘들더라도 중단만은 하지 맙시다. 은퇴 후엔 더 헌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20년 전 일인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계관 운동이 지식인을 자처하며 남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자”는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유재봉 교수님도 참 오랫동안 학회를 섬겼습니다. <신앙과 학문>의 편집을 맡아 등재학술지로 발전시켰고 지난 4년 학회를 이끌어왔지요. 성균관대에서 지위를 이끌어내 매번 학회를 개최해온 수고도 했고요. 인생의 3기를 맞아 일보다는 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소망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태화, 서성록 두 교수님의 문화예술 칼럼은 문화와 예술로 세계관적 반성의 외연을 넓혀줍니다. 서평을 써주신 최현일 원장님은 의학칼럼으로 오래 섬겨주셨습니다. 이상민 선생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원고의 질을 높이며 애써 교정을 자원하십니다. 이번엔 자크 엘룰(Jacques Ellul) 전문번역가로서 애정을 갖고 책의 서평까지 주셨습니다. 청년들의 글과 학회 논문 요약도 감사합니다. 충주 함께하는교회 임대환 목사님의 ‘복음세계관 이야기’와 라소영 집사님의 수료소감은 참 귀한 간증입니다. 유경상 교수님과 함께 지역교회의 활성화에 체계화된 세계관 교육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예입니다. 통영 LMTC가

또 다른 예입니다. 봄 학기 여섯 교수님들이 섬겨 주셨습니다. 합동총 총회로부터 세계관 교재 편찬 의뢰도 받았습니다.

참 지난 호 강영안 선생님의 글에 편집 오류가 있었던 점이 송구합니다. 고 이근삼 총장님의 지도교수를 선교학자인 요한 헤르만 바빙크(J.H. Bavinck 1895-1964)로 표시하셨는데 편집상 오류로 조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1854-1921)로 나갔습니다. 세상을 떠난 분의 논문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공통은혜’라는 표현에 ‘일반은총’을 병기한 것은 그 말에 익숙한 독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글에도 잘못이 있었으면 꼭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또 혹시 글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율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기도와 성원 질책을 부탁드렸는데 넘치게 받아 정말 기쁩니다. 원고료를 드리지 않지만 소홀함 없이 독자를 존중하며 배움과 은사를 나누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글들이라도 현실 이슈들을 성경의 안목으로 읽어내는 일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격주로 모이자는 열심을 제가 정색을 하고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과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힘든 시간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오늘도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숙원

총신대 명예교수,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캐나다 기독교 학문연구소, 네델란드 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신앙과 삶> 편집장과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자족을 위한 경작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민주화

4차 산업혁명은 미래에 이루어질 변화에 붙여진 이름이기에 그 전개 양상을 모두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기에, 주님이 기뻐하실 변혁을 꿈꾸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어떤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를 물어야 한다.

버클리대의 체스브로(Henry W. Chesbrough)와 MIT대의 하이펠(Eric von Hippel) 교수는 개별 기업의 내적 역량만이 기술 혁신을 주도해 왔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틀렸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기업의 경계를 넘어 협력 업체, 제품의 소비자, 경쟁 업체의 혁신 역량까지 폭넓게 시너지를 이룰 때 기술 혁신은 더욱 효율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런 현상을 '기술 민주화'라 부른다.

라이너스 토발즈(Linus Torvalds)에 의해 시작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수많은 해커 공동체를 통해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었고 그 공동체들을 통해 발전이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의 등장도 오픈소스 중심의 기술자 공동체가 있어 가능하였으며, 이런 공동체의 출현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일반 대중의 참여, 곧 기술 민주화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오픈소스 운동은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쓰려는 메이커 운동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매우 흥미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에이다프룻>(Adafruit) 같은 기업들은 약간의 기술 지식을 가진 모든 개인이 첨단 전자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열어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초연결성'(Hyper Connectivity)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반 대중은 이제 인류의 역사 속 어느 시대의 인간들보다 월등하게 강화된 역량을 갖추게 되는 기술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 민주화를 통해 강화되는 개인의 과학기술 역량이 갖는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스스로 말미암는 자

인간의 자주와 자결 가치의 근거를 '스스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신성에서 찾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은 아니다. 물론,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자주와 자결은 교만과 방종의 뿌리가 되어 자멸을 재촉한다. 하지만, 주님의 법도에 대한 순종도 우리 안의 자원하는 마음, 즉 '스스로 말미암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야 함은 역설적이지만 진리이다.

만물에 이름을 주어 다스리고, 같은 이름들을 공유함으로 이루어낸 언어 공동체로 연결되어 문화와 지식을 구축했던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 말미암는' 하나님 형상의 발현을 통해 자족의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바, 이 모든 과정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술 민주화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말미암는' 역량을 더욱더 확고하게 갖게 된다는 현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지 아니면 멸망의 징조로 걱정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인간, 자족하는 경작자

창세기 5장 29절은 노아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할 자'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경작의 수고를 안위하시기 원하셨다면, 수고롭게 일해야만 하는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의 결과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읽는 창세기 3장 17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먹는 것은 모두 스스로 경작하여 얻도록 하라"라고 읽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시를 둘러싼 성벽을 경계로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으로 나뉘어 경작하지 않는 지배 계층이 생겨나고, 경작할 땅도 없는 '도시인'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창세기 3장 17절의 조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어쩌면, 창세기 3장 17절의 조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타락한 우리 모두가 자신이 수고한 결과물을 먹는 자족의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경작의 고단함을 안위하기 위해 인류 최초의 엔지니어 노아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이르면, 우리는 과학기술의 성경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된다.

스마트 파밍

MIT대의 갈렙 하퍼(Caleb Harper)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설비를 만들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그는 "이 기술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농부가 될 수 있게 하는 기계로 농업을 하게 될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리라 소망합니다."라고 말한다.

산업화는 자신이 먹는 것을 위해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사회를 만들어 낸다. 이런 사회에 타치는 청년실업과 고령화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오픈소스 기술로 한층 강화된 역량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 파머가 되어 가능한 많은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회는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상상해 본다.

초연결성이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술이 만들어 내는 기술 민주화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개인들의 공동체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와 국가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이상 사회일 수 있다. 물론,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이상의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에덴동산의 모습이고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 모습의 한 자락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FAITH & LIFE**



✍️ 글쓴이 정수영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이다. 미시간대에서 공부(산업공학, Ph.D)하였고, 그리스도인 대학원생들을 독려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포항 기쁨의교회 안수집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기술 문명

정문열 (서강대 영상대학원 교수)



‘미래기술과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술과 기술 문명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 기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시, 수필 쓰기에 소질이 있었고 10 반 중의 3반이 문과였던 고등학교에서도 문과였으며 법대를 가겠다고 생각했다. 법대 진학 동기를 두고 아버지와 다툰 후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여,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나는 먹고 사는 것의 일환으로서 이 전공을 좋아하거나 즐기지 못했으며, 이 전공에 인간적인 또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교수가 되어 이 전공을 가르치고 실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를 즐기고 좋아하게 되었으며, 이 전공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 인공지능 혁명 등 우리의 삶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IT 기술의 등장은 IT 기술을 전공한 나에게도 놀라움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전공한 기술이 이러

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기술의 인문학적 의미와 잠재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공학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데, 그것은 내가 기술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종말론’ (eschatology)에 대한 나의 생각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종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종말론이 기술을 포함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 교회 리더들은 설교와 성경공부 과정에서 이 땅에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사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유추하게 만드는 많은 전제들을 가르쳤다. 창조된 세계는 잠정적인 것이며 멸망되어 사라질 것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이 땅이 결국 버리고 떠날 곳이라고 생각했다. 대학 시절 성공

회 대천덕 신부님이 운영하는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으로 수양회를 간 적이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내가 질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분이 “나는 천국에서도 시냇물이 흐르고 새가 지저귄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씀을 한 기억이 있다. 나는 “그럼 천국에서의 삶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말인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내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충돌들이 매우 불편했다. 그리고 이 충돌들의 근저에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성경의 원어인 히랍어와 히브리어를 인용하면서 하는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입장들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나 스스로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내공을 기르기 위해 신학 공부, 특히 히랍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강도 있게 했다.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되는 구약성경의 예언서, 특히 이사야서를 본격적으로 공부 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변화,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도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나라”를 말한다 고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인간이 기술 문명을 이룬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 명령을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기술 문명은 인류가 스스로를 개발하며 살아왔던 방식이며, 그 방식이 변화, 회복된 형태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연세대 연합신학원에서 신약학으로 석사학위 논문¹⁾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다. 나의 종말론

신학을 지지하는 책²⁾들이 적지 않게 출판된 것도 큰 위로가 된다.

생각이 자유롭게 되고 과학기술을 향유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나는 태양 빛을 이용하는 무지개³⁾도 만들어 전시하고, 물로 3차원 조각⁴⁾을 만들어 전시를 한 바 있다. 물론 과학기술은 인간이 잘못 사용하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는 길은 과학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인문학의 기본소양으로 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기술 문명을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FAITH & LIFE**

- 1) Moon-Ryul Jung,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the mission to the nations in Luke-Acts”, MA thesis, 연세대학교, 2008.
- 2) A.M. Wolters,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1985; (2) N.T. Wright,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2003; (3) N.T. Wright, “Surprised by Hope: Rethinking Heaven, the Resurrec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2008; (4) J.R. Middleton,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Reclaiming Biblical Eschatology,” 2014; (5) G.K.Beale and M. Kim, “God Dwells Among Us: Expanding Eden to the Ends of the Earth,” 2014; (6) H. Synder, “Salvation Means Creation Healed,” 2011; (7) A.J. McNicol, “The Conversion of the Nations in Revelation,” 2013.
- 3) <https://www.youtube.com/watch?v=tjifmil27Fc>
- 4) <https://www.youtube.com/watch?v=SZTTPS0pgQI>

글쓴이 정문열



서강대학교 아트& 테크놀로지 학과 / 영상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 계산통계학과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본적으로 문과적 성향을 지녔으나 과학기술을 전공하게 되었다. 신학자들의 상반된 성경해석들 사이에서 길을 찾기 위해 히랍어와 히브리어를 독학하여 사전을 이용하여 원문강독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교수가 된 후 ‘과학과 예술’ 통합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경해석을 해 보는 연습을 한 후, 신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워졌다.

기술사회 속 교회의 과제: ‘어떻게’에서 ‘무엇’을 넘어 ‘왜’라고 묻기

손화철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철학교수)



‘과학기술입국’(科學技術立國)의 가치를 세우고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 개발에 열중하던 시절의 과제는 ‘어떻게’ 즉 ‘목표를 이루는 방법’(know how)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배우든 스스로 알아내든, 남의 기술과 디자인을 표절하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모두의 숙제였다. ‘어떻게’가 중요했던 이유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빨리 도달하고 더 멀리 가길 원한다.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명백한 목표였다. 여기서 조금 더 이상적이라면 “내가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하는 정도였다.

물론 과거에도 현대 기술의 ‘어떻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기독교 사상가로도 유명한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현대 기술의 ‘어떻게’가 지

는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무작정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현대 기술의 발전 방식이 인간의 자유를 앗아갈 것이라 했다.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런 경고에 진지하게 귀 기울인 이들은 많지 않다. 현대 기술이 이미 해결한 문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워낙 분명했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1차적인 필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다음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는지, 무작정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명백한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문제인 줄 몰랐던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 시절이 왔다. 이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과거보다 더 커졌고, 새로운 문제의식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문제 발견과 문제 해결’이란 키워드가

등장했다. 성공사례는 ‘우버’(Uber)나 ‘에어비엔비’(AirBnB) 같은 신사업들이다. 빈방은 늘 있었고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여분의 공간과 시간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었다. 이 여분의 자원과 연결되지 않았던 수요와 공급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어 새로운 시장이 생겼다. 주위에 혹시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먼저 발견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하면 성공할 수 있다.

‘무엇’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필요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걸어다니면서 TV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 식사 전에 음식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려는 욕망을 가졌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 자동차가 굳이 스스로 운전하기를 바라거나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세상을 고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해 왔고 어딘가를 향해 열심히 간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 새로운 ‘무엇’들은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본래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없던 문제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교회 버스부터 ‘카카오톡’(Kakao Talk)까지 적극적으로 현대 기술을 수용해 왔지만, 인공지능이 판치는 세상에 대해선 유보적이다. 그런 세상에서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무엇’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왜’라는 물음을 초대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무엇들이 등장하여 우리 삶의 질서를 바꿀 때 왜 그 무엇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무엇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어떻게’의 시절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던 기술 발전의 관성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발 시대의 한국 교회는 기술의 발전과 문화명령을 굳이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 ‘왜’라고 묻는 물음 자체가 생소하다. 그러나 당연한 시대의 흐름과 사조에 ‘왜’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오늘 우리는 범람하는 기술의 ‘무엇’을 너머 ‘왜’라고 물어야 한다.

‘왜’의 물음은 거부의 물음이 아니다.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물으면 어떻게 사용할지도 무엇을 개발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크고 작은 기술에 대해 ‘왜’라고 묻는 것에서부터 거대한 기술 문명의 흐름에 답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대안 모색을 시작할 수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철학교수이다. 서울대 철학과 학부와 벨기에 루뱅대 대학원(Ph.D. 기술철학)에서 공부했다. 저서로 <현대 기술의 빛과 그림자: 토플러와 엘릴>,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공저), <과학철학: 흐름과 쟁점>(공저), 역서로 <불평할 권리>가 있다. 곡강교회 집사이다.

미래사회 의료상 : 기대와 우려

김창원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개인의 호주머니 속엔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컴퓨터가 한 대씩 들어있고, 목적지만 알려주면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그저 영화의 소재이거나 상상 속에 그렸던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되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화두로 던지면서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빅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의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핵심키워드로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실용화로 인해 우리사회는 보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대의 의료시스템에서는 몸이 불편하면 약국이나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유사한 질병에 대해 획일적인 약이 처방되고 있다. 즉, 증상을 기반으로 한 직관적 의료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4P 의료(Predictive, preventive, personalized, participatory)를 지향하고 있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 치료에 목적을 둔 의료가 아니라 개인 유전자 정보, 일상생활 환경, 식생활 등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병 이전에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의료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3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 게놈 지도를 통해 인간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염색체 상에서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타액 및 혈액 등에서 채취한 D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병 발병률, 약물 효과성 및 부작용 등의 개인적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에는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DNA부위를 자르는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통해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3D프린팅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장기, 골격, 피부까지도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현재에는 기적적으로 장기기증자가 나타나면 해당 장기 이식수술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미래에는 바이오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건강한 장기와 골격을 생산해서 이식하고, 외상 환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피부와 동일한 피부를 이식하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IBM은 의료 지식과 암환자의 의료 정보를 통해 90% 이상의 정확도로 암 치료법을 추천하는 왓슨(Watson for Oncology)을 개발하였다. 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의사의 출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의사는 진단과 시수·술에 있어서 인간의 오류를 방지하여 안전한 의료이 이루어지게 도울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수반하는 과학 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의료 분야 변화의 일면을 예측해 보았다. 사실 로봇공학 기술과 인공지능을 통한 무인화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바로 기술 수용성이다.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가 예측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이미 미래에 사라지게 될 직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일었던 '러다이트 운동'을 볼 때, "인간이 점차 배제되고 소외 받을 것만 같은 사회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까?"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사회의 전면에 보편적인 기술로 보급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다 많은 우리의 이웃이

혜택을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이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대수명이 82.7세로 늘어났고, 미래 의료 기술을 통해 인간의 수명은 더욱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전자 복제 기술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복제 인간을 만들 고자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마치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 과학기술을 통해 생명 창조를 꿈꾸는 것처럼 스스로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에서 기인한 많은 시도들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 기술의 발전을 통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따라서 의료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창원

한국기계연구원(KIMM)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 의료지원 로봇연구실 책임연구원이다. 부산대 기계공학과 학부와 동대학원 석사, 텍사스 A&M 대 대학원(Ph.D)에서 공부했다. 대구 내일교회 집사이다.

과학자와 기독교세계관, 윤완철 교수

KAIST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교수로, 오래 전부터 기독교학문연구소(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등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함께 해 온 윤완철 교수를 만났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학부와 KAIST 석사, 조지아 공대 대학원(Ph.D, 정보체계학)에서 공부했다. 지난 30년 동안 KAIST 교수로서, '인지공학',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CI),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가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되어 자리를 잡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일시와 장소 2019. 7. 8(월) 낮 12~2시 & 카이스트 E2-2동 연구실
인터뷰어 박문식 (한남대 기계공학과 교수, 감사), **사진&정리** 석중준 (사무국장)

박문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윤완철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윤완철 교수입니다. 31년째 재직 중이고 연구 분야는 '인지공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낙후된 '안전공학'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OECD국가 중 1위, 유럽의 4배, 영국의 10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 7월 시스템안전학회를 창립해서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대여섯 가정이 모인 작은 공동체를 나갑니다.

박문식 교수님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로 상징되는 최신 과학 분야들을 연구해 오셨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윤완철 실사구시라고, '사실'(fact)에 입각한 학문인 과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화학이나 생물 등의 개별 분야보다는 인간과 세상과 우주를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학 분야를 생각했고, 그 방향에서 개인적으로 귀착된 것이 '인지 시스템 공학'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지는 인간의 정신을 말하고 시스템은 그것을 개별적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심사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인공지능', '의사결정 문제', '지식 서비스 공학', '안전공학' 등의 연구 분야를 다 이 총체적 시스템 맥락에서 접근하려 해왔습니다. 마침 관심을 끄는 4차 산업은 바로 인간과 기술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지능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국가도 하나의 '인지 시스템'이거든요. 사람만이 '인지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도 당연히 '인지 시스템'인데, 한 사람의 지능이 움직이는 것과 국가의 지능이 움직

이는 것은 결국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가 '개인 지능'은 세계에서 제일 높지만, '조직 지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 지능', 즉 안전 분야 등에서도 어떻게 조직체를 체계화하느냐의 문제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식 그리스도인 과학자의 일차적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완철 과학자에게 과학은 그의 일이고, 일차적으로 그 업(業)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에 우선 충실해야지, 그것을 이용해서 종교 활동이나 복음에 기여하겠다는 이원론적 사고는 충성스러운 것이 못됩니다. 과학자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일차적 사명은 자신의 연구 분야가 되어야지, 신앙의 영역으로 대체하려는 이원론적 입장에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인지 시스템' 공학자로서의 일을 하는데요. 이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전문제 같은 것에 더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또 세월호 같은 비극을 없애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한 '인지 시스템' 공학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과 과학을 두 영역으로 나누고, 기독교를 창달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식은 곤란합니다. 그저 과학자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비그리스도인 과학자와는 차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바탕이 바로 기독교세계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식 일상 속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이신가요?

윤완철 우선 우리나라에 인지공학이나 안전공학 쪽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데, 한 사람이라도 더 저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가 양성되고 분야가 발전하는 것, 그러한



점이 보람이지요. 한 예로 한국에서 처음 안전 분야의 시스템적인 개념과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을 키우거나 실무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앙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철이 들고, 예수님의 뜻을 조금은 더 이해해 가고 있다면 내면적인 보람이라 생각해 봅니다.

박문식 그리스도인 과학자로서 세상에서 언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실까요?

윤완철 개인 능력이 부족해서 겪는 것을 뺀다면,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펍박이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람에 세상과 달라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그러니 직장인들의 마음도 흔히 성공이나 승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적게 주어지고 협력자를 얻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일 자체의 중요한 본질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같

이 일하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오
히려 나름의 사상적 주관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더
잘 호흡이 맞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박문식 교수님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개인적으로 대처하시는지요?

윤완철 대처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는 상황은 늘 어렵다고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는
소리로 기도를 해야 신앙인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하실 일이 생긴다고 보는 것인지 모릅니
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투쟁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
상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
며 우리에게 일과 그에 필요한 환경을 주시고 계십니
다. 하나님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싸우고 계신
다는 설정이나 세상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구
도는 일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기중심적 사고
일 수 있습니다.

**박문식 교수님은 오래전(1996년)부터 ‘기독교학문연구소’의
학술지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등으로 섬기셨는데요. 기
독교세계관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윤완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독교세계관 운동
이 신앙 개혁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
습니다. 교회 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데
요. 즉 개개인이 믿는 법을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 교
회가 교회로서 역할하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종종 기
독교가 ‘목사교’가 되어 가는 경우를 바라보면서, 저는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기성
찰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답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
을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세계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식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세계관 운
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보시
지요?**

윤완철 기독교세계관 논의는 자신이 변한다는 점에 가
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독
교세계관 운동이 아니라, 우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
야 합니다. 후자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
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배워온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이 생각의 습관들
을 자성해서 고치고 잠재의식의 부분마저 수술한다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 지식을 얼마나 더
추가해 가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못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고 더 순수해진다는 것과 관
련이 있습니다.

**박문식 최근 세간에는 미래과학 기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을 더 크게 보시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윤완철 양면적이긴 합니다만, 인문학 쪽에서 생각하면
미래과학 기술은 사람을 많이 퇴행시킵니다. 인지와
학적으로도 실제 퇴행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원고지
를 사용해서 몇 페이지의 문장까지 다 생각한 다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쓰고, 복사 붙여넣기로
바꾸면 되니까, 점점 관련 뇌 기능이 퇴행합니다. 과학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정보의 폭격 문제
는 더욱 심각한데요.

가령 빅데이터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주로
먼저 고객이나 대중의 경향을 알아내는 데 사용되거
든요. 누군가가 사람의 감정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
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야흐로 소셜에 나온 감정공학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과

연 이러한 시대가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의 시대인가 그 반대인가를 말이죠.

옛날에는 달리기 잘하고 토끼를 잘 잡고 하는 사람이 유능한 인간이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정보를 누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잘 다루며 심지어 그것을 잘 조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많은 경우 본래 것들에 대한 가치와 능력이 전도됩니다. 그저 과학기술에 최적화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되는 부문이 중요한 부문이라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인간 사회의 본래적 가치가 아니라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 새 영역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 가치가 좌우되고 하는 점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박문식 이 땅의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완철 만일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세상을 본 원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운동이라면 당연히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입각한 미션을 수행하자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또 신앙의 상층에 어떤 철학적 배경을 갖추고, 내공 있고 족보 있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 오는 권위를 행사하려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신이 석사고 박사고 교수쯤 됐으니까 지식인으로서 교회에서도 뭔가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자는 식의 동기는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세계관 운동은 자신이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생각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방향에서 실천하는 힘이 나오고, 서로 그것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운동성이 생기는 의미라면, 더 많은 이들이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동

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문식 우리 시대 교회 지도자들(평신도 &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일차적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완철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에 관한 사상이나 말들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자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리체계를 믿는 사람들이기 전에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도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교리체계만 제시한 채, 삶의 내용이 될 예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 빈 자리를 자신의 근거 없는 애드립으로 대신 채운 중개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에서 특정 이데올로기에 종속되고 오염된 교인들의 문제도 양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말씀을 믿는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박문식 마지막으로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젊은 세대(2030)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완철 지금은 제대로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봅시다. FAITH & LIFE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어제와 오늘

유재봉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오늘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두 모태는 1980년대 초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이다. '기독교학문연구회'는 2000년에 '기독교학문연구소'(KCSI)의 설립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도 1993년 사단법인이 되면서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EW)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9년 5월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학술단체인 '기독교학문연구소'(KCSI)와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DEW)가 통합하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 하였으며,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과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라는 '동역회'의 명칭과 '기독교학문연구회'라는 학회의 명칭 외에는 통합되기 이전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융화되어 발전해 왔다. '동역회'의 공식 학회의 이름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다. 학회의 생명은 활발한 학술 활동에 있고, 그 활동

의 결실은 학회지 발간이다. '동역회'로 통합되기 이전에 '기독교학문연구회'는 1996년에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그 당시의 학회장은 황호찬 교수(세종대), 편집위원장은 윤완철 교수(KAIST)였다. <신앙과 학문>은 2005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가 되면서 공신력을 갖춘 기독교 학술지로 부상되었다. 다른 한편, '기독교학술동역회'는 1988년 <통합연구>를 첫 발간하였으며, 당시의 학회장 겸 편집위원장은 양승훈 교수(경북대)였다. <통합연구>는 <신앙과 학문>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다양한 주제를 기독교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기독교적 학문발전에 기여하였다. 2009년 통합 이후 '동역회'의 학회의 대외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신앙과 학문> 학술지는 2009년에 처음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당시 학회장은 전반기에는 김승욱 교수(중앙대)가, 하반기에는 조성표 교수(경북대)가 이어받았으며, 편집위원장은 유재봉 교수(성균관대)였다. <신앙과 학문> 학

술지는 2012년과 2016년 연속으로 학술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여 여전히 등재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기독교학문연구회'는 또한 연4회 <신앙과 학문>의 발간,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기독교학문학회) 개최 등으로 해마다 100편이 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기독교 학자들의 학문의 향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나의 학문의 여정이 '기독교학문연구회'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편집위원(2001-2002)을 시작으로, 편집위원장(2003-2011.6), 부회장(2011.7-2014.12), 회장(2015.1-2019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게다가, 편집위원장으로서 <신앙과 학문>을 차례로 등재 후보지와 등재지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 잇닿아 있도록 한 것은 결코 나의 학문적 능력의 뛰어난 때문이 아닐 것이다. 어느 편인가 하면, 이는 나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속 학문을 탐닉 하며 빠져 있을 것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의 곁에 붙들어 두려는 세심한 손길이다. 이 점에서 내가 '기독교학문연구회'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인내하며 섬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내 인생 약 60년은 대략 20년씩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초반 20년까지는 진리의 빛을 찾아 구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하면, 그 이후 40세까지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학문을 조망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고, 60세까지 약 20년 동안은 '기독교학문연구회'를 섬겼던(?) 시기였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은 끝이 없는 일이라는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제 학회는 후학들에게 맡기고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학) 연구로 기독교학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 이 작업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육의 이론이나 주장 속에 들어있는 논리적 가정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일이다. 둘째,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기존의 교육학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다. 셋째, 교육 실천과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독교 철학의 관점에서 이론화하거나 검토하는 일이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해 볼까 한다.

“여호와와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시편111:2)는 말씀처럼, 이 과제들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육(철)학을 공부하게 하고 학자로 부르신 참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유재봉

성균관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이다. 런던대학교(UCL Institute of Education)에서 교육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 최근에 성균관대 사범대학장과 '전국 사립사범대학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2000년 기독교학문연구소 창립 때부터 '기독교학문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편집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현재 학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원자력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단상

류진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원)

원자력 발전 산업은 다른 많은 산업 분야처럼 다양한 기초 공학이 응용되는 분야인 동시에 원자력 산업을 위한 전문 공학 또한 발달된 분야이다. 원자력 산업에 응용되는 기초 공학은 기계, 전기, 재료, 컴퓨터 등으로 다양하며, 원자력 공학에는 원자로 물리, 열수력 등 세부적으로 특화된 전문 분야가 존재한다. 여러 가지 원자력 산업 중에 단연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일 것이다.

얼핏 원자력이라는 단어는 원자력 산업이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첨단기술이 집약된 산업 분야라는 느낌을 주지만, 실상이 꼭 그렇지는 않다. 반도체,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혁신과 첨단이 미덕이라면, 원자력 산업에서는 사용되는 특정 기술이 오랜 기간 검증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가 설계수명이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60년에 달하는 신뢰도와 내구성이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계의 보수적인 분위기에 더 불구하고, 필자가 속한 원자력 산업계의 계측제어분야에서는 무선통신 기술의 적용과 사이버보안이라는 비교적 최신의 기술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기술적인 이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이슈를 접하며 생각해 본 바를 나누고자 한다.

원자력 산업계라는 특수한 산업생태계에서 무선통신 기술은 꽤나 도전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의 무선통신이 장기간을 고장 없이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신뢰도에서 실제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방사선사고 발생 시 무선통신을 위한 디지털 계기들의 내구성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안전을 위한 규제와 설비개선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비용이 가중되면서,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도 동시에 증대되었다. 또한, 무선통신을 비롯한 외부 기술의 수준도 나날이 발전하여 동일한 기술에 기대되는 편익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무선통신 기술이 원자력 산업계에서 새로 접목되는 기술이라면 이미 업계에서 발생한 기술 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분야가 바로 사이버보안이다.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의 경우 기존의 구형 아날로그 설비들의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동일 설비로 대체가 불가능한 설비들을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계측제어 설비의 도입은 발전소 운영 측면에서 많은 효과와 신뢰성 향상을 가져왔지만, 반대급부로 새로이 디지털 설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즉 사이버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난 2015년 관련법이 개정되며 국내 원자력시설들은 본격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내가 소속해 있는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보안 관점에서의 규제활동을 정부의 위탁 업무로 수행하는 규제전문기관이다. 사이버보안 규제기준을 발간하고 이에 따른 원자력시설들의 이행결과를 심·검사 활동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업을 마치고 2017년에 입사하여 상기 업무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관의 사명과 고유 업무에 대해 느꼈던 첫인상은 규제기관이라는 곳이 원자력시설의 안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원자력이라는 기술은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유익할 테지만 잘못 사용되면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평화로운 목적으로 이롭게 사용하고자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업무를 하며 다소 우려가 되는 점도 있어 항상 이를 유념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는 선한 목적에서의 기술 통제가 자칫 본말이 전도되어 통제를 위한 통제로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업무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각종 규제행위들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는 찾아볼 수 없고, 그 행위를 위한 각종 부수적인 일들로 인해 규제자나 피규제자 모두 곤혹스러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수반되는 모든 일이 불필요한 일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테지만, 모든 규제행위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

일까 고민하며, 관습대로만 일을 처리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모두에게 덕이 되도록 업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사이버보안과 무선통신 기술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그 기술을 통제하려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사례인데,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게 된다. 기술의 문제점을 기술로 극복하려는 연결고리에 대한 성찰과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기술이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며 기술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일하게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려 나가야 할 선한 창지기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현실을 인식하고 회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류진호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연구원이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 대덕장로교회 청년이며, 교회 안에 기독교세계관 공부 모임 '딤킨대'(Thinking Christian in 대덕)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뇌 과학,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다

정이레 (카이스트 자연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영화 <인셉션>(Inception, 2010)은 주인공의 팀이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하여 회사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바꾸려 하는 여정을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공상과학’(Science Fiction, SF) 소설의 대표 작가 로버트 소여(Robert J. Sawyer)는 이 장르를 “현재에는 없을지라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인간의 인식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미래에는 정말로 거짓 기억을 뇌에 심을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지금의 뇌 과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미래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메사추세츠대(MIT)의 스스무 토네가와(Susumu Tonegawa) 교수는 쥐의 해마(hippocampus)에서 이러한 거짓 기억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연구자들은 빛을 쬐어 신경세포의 활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하는 광유전학을 이용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특정 장소를 표상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원래는 공포 기억이 없어야 할 장소에서 공포반응을 나타내게 했다. 실제로 전기 충격을 받은 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인데도 광유전학적으로 자극 받은 신경세포들이 표상하는 장소에 대한 거짓 공포 기억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후에 다른 여러 연구 그룹들에서는 기억을 지우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앞서 말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

로 형성된 공포 기억을 저장하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키는 패턴의 빛 자극을 주었더니 공포 기억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기억을 저장하는 특정 신경세포들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비활성화 시키면 그 신경세포가 담당하던 기억이 지워진다는 것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저명한 과학 저널인 <네이처>(Nature)와 <사이언스>(Science) 등에 게재되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기억을 넘어 감정을 조작하는 흥미로운 연구도 발표하였다. 이 역시도 광유전학을 이용하였는데,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체 영역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상하는 신경세포와 부정적인 감정을 표상하는 신경세포를 각각 표지하였다. 그 후 쥐를 자유롭게 탐색시키면서 한쪽 장소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다른 장소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상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켰다. 반복적인 노출 후 장소에 대한 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쥐가 긍정적인 감정과 연합된 장소는 선호한 반면 부정적인 감정과 연합된 장소는 회피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쥐의 행동을 통해 각 장소에서 느끼는 쥐의 감정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쥐의 뇌와 인간의 뇌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각 영역의 위치와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위와 같은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물론 윤리적인 문제와 뇌에 약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술적 한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지만 말이다. 만약 이러한 기술이 현실화 된다면 인간은 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를 형성시킨 기억을 표상하는 신경 세포를 찾아 비활성화 시키거나, 긍정적인 거짓 기억으로 덧씌우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서 조절 장애 환자들이 우울한 감정의 조절이 어려울 때 간단한 스위치를 누르면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하여 환자들의 정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이 그러하듯, 뇌 과학 기술의 발전도 밝은 면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서두에서 언급한 영화 <인셉션>의 경우와 같이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는 기술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을 남용하면 사람들은 거짓 감정과 거짓 기억에 둘러싸여 거짓과 실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Michio Kaku)는 뇌 과학 기술의 미래상을 다룬 <마음의 미래>에서 거짓 기억에는 그것이 거짓임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고안하여 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광유전학을 이용하여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는 그 기전(mechanism)이 마약의 작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존성과 중독 같은 사회적 문제 역시 발생

할 위험이 있다.

지금도 충분히 거짓이 넘쳐나고 미혹의 영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세대인데, 우리의 뇌에 거짓 감정과 기억을 심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사탄이 교묘하게 이 기술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우려도 된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만 앞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척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기술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충분히 생각해볼 기회를 잃을 것이다. 우리가 배척한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에 유익한 부분은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와, 우려되는 부분은 지혜롭게 대처할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기억하여 기술이 가져다주는 유익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진리의 영에 속할 때 미혹케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이레

카이스트 자연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이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뇌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학습과 기억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학원 시절부터 기독교 동아리 RACS(Research Association of Creation and Science)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 대전 새로남교회(예장합동) 청년이다.

월급쟁이 그리스도인의 고민

모아론 (원도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생각해보니 항상 문제는 일이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라는 물음에 삶을 돌아볼 때, 사실 내가 돌아보는 건 내가 아닌 내가 했던 일이었다.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간 것도, 질문을 하다 울음이 터진 것도 내가 아닌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이었다.

하루 8시간, 내 삶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일은 단순히 ‘일’이네 라고 넘기기에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일이 곧 소명이고, 삶이 예배라고 배웠기에 더욱 그랬는지 모른다. 문제는 바로 그 일이, 일을 하게 된 순간 내 주도권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 일과 나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순간 고민이 시작된다. “내 일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이 일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내 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충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멕시코 한인교회에서 1년 3개월, 에콰도르 선교지에서 3개월, 한국에 돌아와 비영리단체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직을 한 것은 아니다. 단지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다보면 배워야 할 것들이 생겼고 그에 맞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내게 해야 하는 일이란 ‘이웃 사랑’이었고, “불평등한 세계체제에서의 사회참여”였다. 쓰고 보니 너무 거창한 것 같지

만 원래 방향이란 게 그런 것 아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를 보며 이력서를 썼다. 세계 형성적 기독교를 생각하며 교회에 갔고,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위해 선교지에 있었다. 굶주린 자에게 빵을 주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비영리단체에 갔고, 기쁨의 도시를 꿈꾸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왔다. 일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바는 분명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갈등은 찾아왔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일까?”

현재 내가 하는 일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무지의 이름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이 재개발·재건축에서 도시재생으로 변하면서 시작된 국토부의 사업 중 하나이다. 국가 정책에 의한 사업이기에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이것이 일터에서 내게 부여된 방향이자 지침이다. 처음 일을 시작할 무렵 도시재생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쇠퇴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도시재생이 ‘살림’을 이루기 위한 하



나의 방법인 것 같았다.

하지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는 2년 동안 도시재생을 알아갈수록 부딪히는 지점이 늘어갔고, 나를 제약하는 것은 일의 방향만이 아니었다. 실력이 부족한 나를 포함하여 결정권을 가진 상급자, 함께 일하는 동료, 어쩔 수 없는 현장의 상황 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적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며 진행한 일들이 쌓여만 갔다. 현장에서 내 방향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김남주 시인의 '어떤 관료'가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끝이 어디인가? 나는 그 일에 어디쯤 서있는가? 그리고 일터에서 나는 비 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른가?

갑작스럽게 부탁받은 원고는 정리된 무언가를 쓰는 것이 아닌 쓰면서 정리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쓰는 동안 질문만 늘었다. 가끔은 이러한 질문이 일을 그만 두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긴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내 일이 속한 영역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답하는지 찾는 것, 거기에 빚대어 내 일과 성경이 다른 점을 고민하는 것, 회복된 모습을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행동으로 풀어내는 것.

학창시절 그리스도인은 썩은 사과를 먹을 정도로 튼

튼한 위장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썩은 부위를 도려낸 적이 많았던 것 같다. 썩은 사과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썩은 사과를 먹기 위해선 먼저 썩은 사과를 알아야 한다. 무엇이 사과를 썩게 했는지, 썩은 사과를 먹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등,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썩은 사과를 먹는 연습을 해야겠다. 언젠간 썩은 사과도 소화할 튼튼한 위장을 꿈꾸면서 말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모아론

원도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월급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남대 대학원에서 지역개발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다. 겨자씨교회(합동) 청년이다.



물신(物神) 사회에서 정의롭게 살기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돈〉
(2019, 박누리 감독)

돈은 돈일 뿐이다

영화 〈돈〉의 주제는 돈이다. 돈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돈은 누구나 벌고 싶어한다. 돈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가. 돈은 그야말로 생활이 돌아가게 하는 유희유가 아니던가. 돈은 그런 면에서 선악의 경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선악의 경계에서 있다. 돈은 나쁘지 않다. 돈은 돈일 뿐이다.

영화는 한국 금융의 중심 여의도 증권가를 비춘다. 하늘 찌르듯 솟아있는 마천루 빌딩은 활기찬 이들로 가득하다. 금융인들이다. 하루에 수십조 원이 거래되는, 그 거래로 울고 웃는 증권가. 주식브로커로 여의도에 입성한 조일현(류준열 扮)은 신입 직원이다. 그 위로 대리, 과장, 부장, 본부장. 어마어마한 경력의 선배들이 즐비하다.

돈과의 악마적 거래

금융가의 돈거래, 처음에는 선악의 저편에 있었다. 그러나 선임 과장의 유혹에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그의 제안은 그야말로 선악을 넘어서는 선택을 요구했다. 한번의 투자로 벌어들이는 돈은 일현이 받는 봉급에 수백 배, 수천 배에 이르른다. 제대로 한번 걸리면 고급 자동차는 물론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기회였다. 자, 이 착한 증권계 신입생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가 처음 이 세계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부자가 되고 싶었다.”였다. 부자는 되고 싶는데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 되겠어?” 보통 사람들이 윤리, 도덕, 원리, 원칙 다 지키며 살아간다면 돈은 어느 세월에 벌겠는가. 특단의 방법이 필요했다. 일현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그것은 악마와의 결탁을 의미했다.

돈이 있으면 메이저, 돈이 없으면 마이너. 다윈(Darwin)식 적자생존 이론이다. 강자가 승자이고, 승자가 곧 강자다. 이익을 챙기는데 선악의 구분이 없다. 하이에나처럼 먹잇감만 챙기면 된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리도 욕심을 내는가? 메이저들은 이렇게 답한다. “재미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깨끗한 돈놀이는 불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돈벌이가 가능할까? 청부(靑富)는 어떻게 가능한가? 애초 이 고민에서 시작했다면 비극의 악순환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악의 경계를 넘어서선 돈놀이는 이미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Faust)의 치명적 악수(握手)가 되었다. 즉 생명을 내

건 계약이 된 것이다. 악마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욕망을 채우려했던 파우스트 박사. 파멸에 떨어졌던 파우스트처럼 불법을 자행하면서 돈놀이에 뛰어들어 이들에게 댓가는 혹독하지 않을 수 없다.

물신(物神)과의 전쟁

어두운 양심과 못된 손들이 작업하는 지하 금융계, 지하세계에서는 쉬지 않고 은밀한 작업이 계속 된다. 빛과 어둠으로 나뉜 세계는 전혀 다른 원칙과 방법으로 돌아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양심과 정의에 기반한 직업윤리이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번다. 이게 빛의 세계에 있는 금융계이다. 그런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이 왜곡되는 세계가 있다. 악마같이 벌어서 졸부처럼 산다! 그렇게 벌어서 언제 부자되겠어! 돈놀이 재미있잖아, 한번 눈감고 클릭해 주면 월급 수백 배도 벌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달콤하게 들린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떨쳐버리기 힘들다. 물신이 어느새 영혼에 또아리를 틀고 옥죄어 온다.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

돈이 우상이 되게하지 말라

경악스런 사실은 돈은 물질이지만 사람이 섬길 수 있는 대상, 즉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런 희구이다. 그러나 이 바람이 욕망이 되고 욕망의 욕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돈을 섬기게 된다.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이 주인이 된다.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돈은 사람을 몰락에 떨어지게 지배하는 물신이 된다. 황금만능주의(Mammonism)의 영, 즉 사탄이다.

현대 사회는 경제가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성경은 끊임없이 청빈과 절제를 가르치고 있

나 사회는 그렇지 않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히 13:5) 안빈낙도(安貧樂道)라는 고전의 가르침도 우습게 여겨진다. 청교도적 가치관은 점점 잊혀진다. 오히려 돈을 섬기려는 경향이 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잠언에 많은 말씀들은 돈을 경계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잠 10:2)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잠 13:11)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잠 14:24)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잠 21:6)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잠 27:24)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잠 28:22)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전 5:13)

돈은 돈일 뿐이다. 돈은 선악의 저편에 있는 물질이다. 비록 돈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행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물이 영혼의 영역에서 활개 치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은 언젠가 우상으로 돌변하여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그런 물신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경고한다.(딤후 3:2)

FAITH & LIFE



글쓴이 추대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문예학과 신학(Dr.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대의 도전에 직면한 미술가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술에는 질풍노도와 같은 난폭한 기류가 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종교와 마찬가지로 예술은 옛날부터 '진리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여져 왔건만 계몽주의 이후 그 지위와 역할을 빼앗기고 만 것이다. 화가는 '영원'과 '생명'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시각과 촉각으로 포착한 것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런 예를 우리는 프란시스 고야(Francis Goya)의 저 유명한 <5월 3일>(1814)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1)

이 작품은 스페인을 침공한 프랑스 군인들이 수천 명의 스페인 농민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프린시페 피오(Principe Pio) 언덕의 뒤쪽은 철쭉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으며, 저 멀리 성당은 무기력하게 어둠속에 묻혀 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학살이라는 잔인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미구엘 감보리노(Miguel Gamborno)의 판화 <다섯 발렌시아 수도사의 처형>(1813)에 등장하는 구도를 차용한 것으로, 도상에서 수도사들은 천주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다.(그림 2)

학살의 사건을 고야는 자유의 쟁취의 관점에서, 감보리노는 순교의 관점에서 각각 다루었다. 두 도상의 차이를 낸시 피어시(Nancy Pearce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순교자 그림에서 희생자는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정



그림1) 프란시스 고야, 마드리스에서의 5월3일, 1814



그림2) 미구엘 감보리노, 다섯 발렌시아 수도사의 처형, 1813

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러나 고야의 희생자는 살인자들에게 절망적으로 호소한다. 전통 기독교 예술에서 순교자는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고통받는 신앙의 영웅이다. 그러나 고야의 희생자는 끝없이 이어진 대열 안에서 ‘덧없이 죽어가는 이름 모를 수백만명’중 하나에 불과하다.” 고야의 그림에서 희생자들은 두려움과 함께 저항을 외치나, 감보리노의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고야의 그림에선 밤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감보리노의 그림에선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들고 내려와 순교자의 간구에 응답하고 있다. 전자의 그림에선 어떤 자비도 없이 초근접 거리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살상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그림에선 순교자들의 절절한 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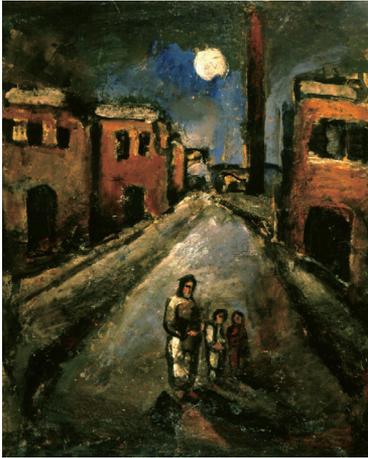


그림3) 조르주 루오, 교회의 그리스도, 1920

와 이 기도를 듣고 황급히 달려오는 천사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두 그림에서 보듯이 화가가 어떤 관점(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커다란 진폭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주제의 연작 중에서 가장 현대적인 해석은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의 <멕시코 막시밀리안 황제의 처형>(1867)이다. 이 작품은 멕시코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황제가 후아레스의 자유주의 정부에 의해 총살된 사건을 주제로 한 것이다. 만약 고야가 사건의 내적 진리나 중요성을 진술하는 견해를 취했다면, 마네는 사물의 겉모습만을 묘출함으로써 가치중립적인 자연주의를 고수하였다. 마네의 그림에는 인물에 대한 공감이나 감정이입이 일체 배제되어 있다. 화가는 그저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아무 감정없이 묘사할 뿐이다.

기독교 예술가들도 경험적인 세계를 존중하고 그것을 예술로 나타냈다. 조르주 루오(Georges Henri Rouault)의 야경 그림을 살펴보면, 웅한 거리에는 차량도, 인적도 찾아볼 수 없다. 삭막하고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다.(그림 3)

루오는 이런 곳에 어른 한 명과 두 아이를 등장시켰는데 부모 없는 아이를 돌보는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 그림에는 고야나 마네의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황의 리듬'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생령을 불어넣으시고 그리스도가 이미 죄의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의 세상을 '은총의 관점'으로 대체할 때 감동적인 작품이 탄생한다.

사고의 관점에 따라 미술은 다르게 표현된다. 고야와 감보리노, 마네와 루오의 그림이 각기 다른 것들이 세계관의 어느 지점에 서있고 무엇을 섭취하고 있느냐가 해석의 열쇠가 된다. 그런데 고야와 마네는 눈에 보이는 사실성의 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위대한 클라이맥스, 일상적인 현상이 지닌 진지하고 의미심장한 의미를 간과하고 말았다. 어떤 미술인은 신앙을 가진 후 화단(畫壇)을 떠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미술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결단이 얼마간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책 인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화단을 떠난 것은 예술이 완전히 타락하여 죄의 나락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나는 바로 이점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다고 여긴다. 로크마커의 권고처럼 우리 문화의 딜레마를 면밀히 연구함으로써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선지자적 역할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험지인 일터일 테니까.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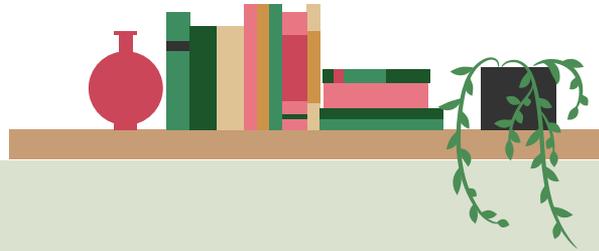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한국미술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최현일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



이 책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티머시 제닝스(Timothy R. Jennings)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다. 영어 원제목은 'The God-Shaped Brain'이며, 부제목이 'How Changing Your View of God Transforms Your Life'로 되어 있다. 부제목이 책의 내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격과 고백이 우리의 몸(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뇌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다)에 정교한 영향을 주고,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정서에 흔적을 남겨서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통찰의 근거를 성경과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자연과 과학의 법칙,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씩 설명하고 밝혀 나간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신념을 품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 뇌는 그에 맞추어 변화되고 배선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책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전개된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과 뇌,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다. 이 부분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도록 지어졌으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짓 영들의 거짓말이 에텐동산을 몰들였을 때, 우리의 뇌는 두려움과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에 빠져들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인간의 뇌는 겨우 1,360g 정도의 무게로 두개골 안쪽의 작은 공간에 들어 있다. 뇌는 1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와 1조 개 이상의 보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세포마다 다른 신경세포와 이어주는 신경연접부가 최고 1만 개에 이른다. 그래서 뇌는 총 100조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경연접부를 통해 고도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신경 조직은 대뇌, 소뇌를 이루고, 대뇌피질과 시상하부 사이에 대뇌 변연계(해마, 편도체 등이 있다)를 구성한다. 대뇌 변연계는 감정, 행동, 동기부여, 기억, 후각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두려움(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잘못을 하나님은 언제 벌 하실까? 등과 같은 거짓 생각들)과 남을 이기고 나만 살아보겠다는 이기심은 두려움의 중추인 대뇌 변연계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승시키고 이것은 대뇌 피질의 활동을 억제

티머시 R 제닝스(지은이) / 윤중석(옮긴이)
CUP | 2015



하고 몸 안에 염증 물질들을 쌓이게 한다. 대뇌피질의 활동이 둔해짐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만성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은 우리의 뇌가 원래 하나님의 설계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다.

두 번째 파트인 '상충되는 하나님관의 싸움'에서 저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관한 개념들을 자신의 환자들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성경을 근거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고, 그 분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뇌가 변화됨을 보여준다. 대뇌피질(특히, 전전두피질)이 강해지고 그 영향력이 나머지 뇌로 확대된다. 대뇌변연계는 진정되고, 왜곡된 개념은 사라지고, 공감과 이타심과 베품이 많아진다. 그리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증거하고 있다.

저자는 뇌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뇌 뿐 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그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기대는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 그의 책 전반을 통하여, 제시되는 성경 말씀의 근거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법칙과, 그것을 밝혀가는 인간의 노력인 과학,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의 경험적인 예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생각이 우리의 뇌와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조화롭게 보여준다. **FAITH & LIFE**



 글쓴이 최현일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이며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샘여성병원 원장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감사이다.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조은혜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조교)



“저건 너무 종교적인 의견이지 않나요?” 라고 할 때, 무엇이 종교적이며 또 ‘종교적’인 것은 무엇인가? 객관적 학문인 것 같은 수학이나 물리학 등의 이론은 과연 종교적 중립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책은 종교와 이론 간의 관계를 밝히면서, 어떤 이론도 종교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음을 주장한다. 저자 로이 클라우저는 20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로부터 이어받은 이같은 통찰을 현대학문 이론들의 예시를 통해 논증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클라우저가 정의하는 ‘종교’와 ‘이론’은 무엇인가? 먼저 그는 ‘종교’를 정의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비의존적’(non-dependent) 특성을 꼽는다. 어떤 본질적인 신적 존재는 다른 어느 것에 의존적이지 않은 특성을 지니며, 따라서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 비의존적 실재를 믿거나, 비신적인 것이 어떻게 그것에 의존해 있는지에 대해 믿거나, 혹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즉,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믿음을 종교적이라고 표현한다. 한편 ‘이론’은 고도의 추상화 작업을 거친 가설의 유형을 말한다.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속성 혹은 ‘양상’(aspect)을 추출해내는 과정인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속성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일련의 법칙을 찾을 수 있다. 이 특정한 양상들에 대해 연구한 것

이 바로 과학 이론으로, 실재나 지식의 본질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재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견해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거나 그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은 종교적 믿음을 전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종교적 믿음은 실재관을 규정하고, 어떤 실재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론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클라우저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수학, 물리학, 그리고 심리학 이론의 경우를 들어 무엇을 신적 존재로 전제하는가에 따라 이론이 제의하는 것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내재된 종교적 믿음이 어떤 가설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우선권을 부여하다 보면, 이론의 전제들을 포함한 실재의 본질이 그 믿음에 선호하는 양상으로 ‘환원’(reduction)된다는 점이다. 그는 이것이 우리의 경험에서 추출된 속성이나 법칙에 무조건적인 존재성을 부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즉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에 그 절대적 존재성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임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비환원주의적 실재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비성경적인 종교적 믿음 대신, 성경적 창조세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삼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비환원주의 이론의 프로그램을 사회론과 국가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클라우저는



로이 클라우저(지은이) / 홍병룡(옮긴이)
아바서원 | 2019

이처럼 이론적 사유의 종교적 뿌리를 밝히는 일을 통해 과학이론 혹은 학문세계 안에서 종교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들이 단순히 신화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이 책은 한 권만으로도 어떤 이론을 종교 중립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잠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누구든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에 내재된 가치관과 관점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만, 좀 더 실증적이고 양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분야에서는 종교라는 영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그 어느 분야의 이론도 종교의 갈매기를 그냥 통과하지 못한다. 종교를 사적인 영역 혹은 선택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이 시대에, 사실은 최신의 과학 이론과 탈근대적 사고방식의 근거에도 종교적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통찰은 클라우저가 에필로그에 언급했듯 단순히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 삶의 모든 측면이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왜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성경적 논리에 입각한 이론 체계가 어떤 면에서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까지를 변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좀 더 구체

적인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내재된 종교성을 밝혀내는 작업, 혹은 신앙과 학문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록 클라우저가 여러 분야에 걸쳐 예시들을 들고 있지만 한 권의 책 안에서 여러 영역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각 전공분야의 이론 속에 녹아있는 비성경적인 관점을 인식하고 그 정당성을 지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정해나가는 작업이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피조물을 절대자로 높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명확한 진리의 체계 아래에서 학문적 발전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저가 가리키는 방향성의 그림자를 따라 앞으로 제시될 비환원주의적 이론들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조은혜

한동대 국제어문학부와 서울대 외교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박사과정 유학을 준비하며 서울대 외교학과 조교로 근무중이다.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대표를 역임하였고, 지구촌 뱀앨교회 청년이다.

초대교회사 다시 보기

김도형 (충주 새로운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제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교세의 감소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배타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의식 등 한국교회의 내면적 가치와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 불리일으키는 위기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당장 눈앞의 현상만 보면 없던 위기가 갑자기 발생한 듯하지만 사실 한국교회는 위기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교회 밖의,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겪는 외적인 위기를 넘어서면 교회 안의 세계관이나 신앙의 세속화로 인한 내적인 위기가 늘 있지 않았는가? 다만 그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는 예리한 안목이 없었을 뿐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외침은 위기를 체감한 한국교회가 내놓은 가장 흔한 처방 중의 하나이다. 성경적으로 들리면서 동시에 복고적 감성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처방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어서게 해줄 해결책의 원형쯤으로 다가갔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처방은 변화를 위한 구호로서는 나름의 역할을 감당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평면적이기 때문이다.

최종원 교수의 <초대 교회사 다시 읽기>는 초대교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도록 돕

는 안내서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제까지 양적 성장이나 교리 형성이라는 신학적 편광렌즈만으로 초대교회를 이해해 온 독자들이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마주한 사회적/역사적 컨텍스트와 이에 대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다양한 반응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끈다. 흔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 초대교회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초대교회의 형성을 위한 문화적, 지리적, 사상적 배경이 이미 무르익고 있었다는 사실, 초대교회가 유대지역을 넘어 로마제국 전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보여주었던 타종교와의 차별성, 대중적인 종교로 자리 잡으며 겪게 되는 박해와 고난, 동서교회로 나뉠 수 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들, 기독교 공인 이후 제국의 종교로 확장되어 가면서 피할 수 없었던 세속화, 그에 반발하여 일어난 수도원 운동의 명암, 제국의 멸망과 함께 종지부를 찍게 된 초대교회의 역사 등을 흥미진진하게 엮어 내려가는 것은 이 책의 강점이다.

하지만 저자는 단순히 초대교회에 대한 독자들의 단편적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선에서 글을 멈추지 않는다. 저자는 위기 앞에서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초대교회의 역사적 상황과 반응에 공명하며 이 시대 한국교회의 위기를 넘어서는 통찰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최종원(지은이)
홍성사 | 2018

야기한다. “초대교회를 배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반복되는 역사 앞에서 오늘날 무엇을 고민하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찾기 위함”(p.313)이라는 저자의 의도는 책을 구성하는 12개의 장 마지막 부분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곳에서 한국교회에 가해지는 다양한 비판과 그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 전환이 어떠해야하는지를 역사 속의 초대교회에서 찾으려 하는 저자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초대교회의 형성과 확장 그리고 분열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는 듯 기시감이 든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충돌, 세속권력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갈등, 빈부 격차와 사회적 구조로 야기되는 문제들, 다름을 틀림으로 몰아가 겪게 되는 분열과 대립 등이 어찌 이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할까. 저자는 초대교회가 이 상황들 가운데서 새로운 대안적 세계관과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살아냄으로 지역적/문화적 불리함을 넘어서 로마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확장을 가능케 했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보편성을 상실하고 제한적 집단 안에서만 공유되는 관점과 가치관으로 변질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분열로 나아가고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음도 보여준다.

결국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한 다양한 대안과 방

향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대안적 세계관과 보편적 가치관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또 그 세계관과 가치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는 요원하리라는 저자의 염려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인 저자가 쓰고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나간 초대교회사이기에 읽기 쉽고 재미있지만 이 책이 없어주는 고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초대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의 문제를 곧바로 연결하여 답을 주려는 저자의 친절함(?)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답을 찾아가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으리라. 초대교회를 새롭게 이해하기에 충실한 입문서로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상황을 고민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관점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될 것을 확신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도형



충주 새로운감리교회 담임목사이다. 시카고 개렛신학대학원과 캐나다 밴쿠버세계관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기술 체계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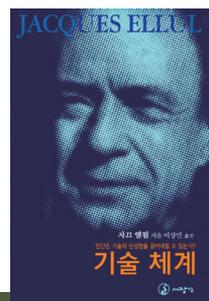


〈기술 체계〉(1977)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자크 엘뤼(Jacques Ellul 1912-1994)의 사상의 요체를 드러내는 저서로 평가된다. 그는 이 저서에서 기술 사회 내부에서의 기술을 ‘체계’로 간주하여 연구하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체계가 되어버린 ‘기술 체계’ 속에서의 인간의 상황과 위상을 묘사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현대 사회의 열쇠를 기술적 요인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주면서, 기술 현상이 삶의 다른 모든 면을 재구성하고 인간 자신을 점차 개조하는 현대 사회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기술은 합리성, 인위성, 자동성, 자가 증식, 단일성, 기술들의 연계, 보편성, 자율성 같은 자체의 특성들을 통해 중립적 실체가 더는 아니라, 신성한 힘을 부여받은 비인격적인 권세가 됨으로써, 인간은 기술을 신뢰하고 숭배대상으로 삼는다. 인간은 기술을 통제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고, 심지어 기술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기술은 정치나 경제보다 더 사회의 결정 요인이 된다. 기술 세계는 인간에게 하나의 환경이 되어버림으로써, 인간은 그 기술 환경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통합된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이 무엇을 보거나 혹은 무엇을 사용하든지 그것은 기술적 대상이며, 인간은 안락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그 기술 환경에 따라 사고한다.

그런데, 기술은 우리 시대에 주요 요인이나 혹은 결정

요인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질서와 비합리성과 비일관성을 사회에 유발하고 사회적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체계’가 된다. 스스로 생성되는 맹목적인 체계는 어디로 가야할 지도 모르고, 자체의 잘못을 바로 잡지도 못한다. 더구나 자기 뜻대로 기술을 사용하고 통제한다고 자부하는 인간 자신도 기술적 대상이 되어버림으로써, 사실상 기술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고, 기술 체계 속에 편입되어 기술 체계에 완전히 종속된다. 특히, 내적 조정 현상인 ‘피드백’(feedback) 현상을 박탈당한 기술은, 근본으로 돌아가 체계의 여건을 변모시킬 수도 없고, 자체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만이 기술의 잘못된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능하면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리, 다시 말해 기술이 존재하면 그 기술을 사용한다는 원리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하기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기술 체계 속에서 기술적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 인간은 기술을 이용하기보다 기술을 섬기는 존재가 된다.

기술 체계가 그 속에 자리 잡는 기술 사회와 관련된 거짓된 이데올로기로서 ‘기술 담론’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기술 사회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인간의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기술 사회를 제



자크 엘뤼(지은이) / 이상민(옮긴이)
대장간 | 2013

시하면서, 기술 사회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러한 ‘기술 담론’이 은폐하려는 기술의 다양한 측면 중 하나는 기술적 진보의 ‘양면성’이다. 즉, 기술적 진보는 극심한 환경 파괴와 극도의 사회적 속박이라는 대가를 치른다. 더욱이, 기술적 진보는 기술적 진보 자체가 해결하는 환경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경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기술 담론’이 은폐하려는 기술의 측면 중 다른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오늘날 ‘기술 체계’가 너무도 복잡성을 띠고 있는 나머지, 불가항력의 재난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예측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예측 가능성은 정보의 과잉으로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이 지배하므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기술 체계가 너무도 발달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모든 활동 분야에서 기술의 요구에 순응할 뿐 아니라, 기술이 결국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믿을 만큼 기술을 신성시하고 기술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 때문에, 엘뤼는 현대인이 무분별한 기술적 성장을 정당화하는 ‘기술 담론’의 현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고하고, 현대인을 그런 현혹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결국, ‘기술 담론’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전 세계적 혼란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소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현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기술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 인간은 무엇이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지 모른 채 체계와 조직에 순응해 살아가면서, 그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품으로서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따름이다. 따라서 ‘기술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엘뤼의 기술 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상을 토대로 행동 방향이나 실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면, 현대의 기술 문명 속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이다. 서울대 불어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불문학 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크 엘뤼의 저서 《기술 체계》, 《잊혀진 소망》, 《이슬람과 기독교》, 《하나님은 불의한가?》, 《굴욕당한 말》(공역), 《뒤틀려진 기독교》(공역) 등을 번역했으며, 자크 엘뤼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parole)의 죽음》, 《자크 엘뤼의 기술 사상과 그 사상에 대한 평가》, 《자크 엘뤼의 인격주의 운동과 혁명적 기독교》, 《자크 엘뤼의 신학 사상과 그 사상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 홈스쿨링 관련 연구 동향 분석

김현숙 (총신대 유아교육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홈스쿨링 관련 연구의 연구 시기,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과거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후속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며, 앞으로의 홈스쿨링의 방향성과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홈스쿨링은 가정(home)와 학교(school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 1999년 '민들레'라는 잡지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홈스쿨링은 학교 중심 공교육 제도가 갖는 부작용,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빠른 변화, 학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 상승, 저출산 등으로 인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에 대한 요구로 인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1999년 약 200가정으로 추정된 홈스쿨링 인구는 2016년에는 경기도 내에서만 235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홈스쿨링 관련 연구도 1999년 홈스쿨링 도입과 인터넷 활용방안 연구(김병안, 1999)를 시작으로 현재 80여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한국학술정보원(riss4u)에서 '홈스쿨링'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199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출간된 석·박사 학위논문 39편과 학술지 논문 41편 총 80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5년 단위로 분류하여 홈스쿨링 연구의 시기, 대상, 방법, 내용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첫째, 홈스쿨링 관련 연구들은 1999년 시작되어 2005년 이후 잠시 증가하였다가 2010년 이후 크게 줄어들었으며 2015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연구는

전체의 27.5%에 달한다. 셋째, 연구대상은 물적 대상 중 홈스쿨링 운동과 제도에 관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중 문헌고찰 및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연구내용으로는 홈스쿨링의 기초와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초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은 첫째, 국내 홈스쿨링의 합법화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홈스쿨링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홈스쿨링의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된 홈스쿨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 홈스쿨링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홈스쿨링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성인이 된 홈스쿨링 1세대와 그 부모를 통하여 홈스쿨링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홈스쿨링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홈스쿨링 전문기관, 전문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홈스쿨링에 대한 실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실험연구나 상관연구 같은 양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초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이론적 연구에서 발전하여 실천연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대학원 생무 '교육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논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 개발

김보경 (전주대 교수, 교육학과)

지식의 폭발적 증가는 장기 기억에 정보를 저장하고 수용하는 전통적 학습에 대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시해 주고 이를 해결하게 하는 문제해결 활동중심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알파고의 등장으로 문제해결능력 조차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문제해결 활동 또한 학습자의 삶과 괴리된 또 하나의 이론적 활동이며 학생의 일상의 콘텍스트로 확장되지 못하는 일회적 학습기회라는 점에서 기계에게 대체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성도의 일상의 콘텍스트가 배제된 채 지식전달 중심의 일회적 성경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성도 또는 학습자가 주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를 발견하여 일상의 콘텍스트에 적용하도록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은 어떠한가? 둘째,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의 적용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다. 연구는 형성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PK), 하브루타 학습, 실천적 성경교육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모형에 반영될 학습원리로 이중적 지식관, 자기주도학습 원리, 직관과 성화의 원리, 공동체성의 원리, 일상학습의 원리, 시간적 성숙의 원리를 도출하여 초기 모형을 개발하였다. 초기 모형은 이해-발견-실천-성찰의 절차적 모형이었으며 이를 적용하여 D시의 S교회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

로 1차 학습 사례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와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모형을 수정하여 2차 학습 사례를 개발한 후 다시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최종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은 순환적인 발달을 지향하는 학습 모형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학습활동과 학습자 내면의 인지적 활동의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모형을 통해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 실천으로 연결되게 되면 다양한 경로로 받게 되는 말씀들이 연결되어 이해되는 계시의 연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실천적 지식'(PK)을 스스로 발견하고 실행하는 완전한 자기주도 학습모형으로 말씀이 개인의 삶에서 실천의 영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적 배려를 필요로 한다. 이 모형은 기존의 주입식 성경교육 프로그램의 재설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촉진자의 역할과 질문 생성 전략에 대해 사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하브루타(havruta)는 대화와 토론을 주 방식으로 하는 유대인의 전통 교육법이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교수/일반부 '교육 A 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이은실 (한동대 교수, 교육학), 고우련 (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박사과정)

기독교 학문공동체인 기독교 대학이 학생 선발에서 기독교인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은 종교 여부에 따라 필수 신앙과목에 대한 학습 흥미 및 동기 수준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1학년 교육 과정에 필수 신앙교과목이 집중된 H 기독교 대학을 사례로 하여, 신앙수업에서의 신입생 적응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학업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종교 여부에 따른 학습 동기의 차이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설명한 '기대-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즉, 성취행동의 동기는 특정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그 행동 수행의 '가치' 인식이 모두 존재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성취행동 동기에 의해서 학업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성취의 결과로 학점을 받는다. 신앙 교과목에서도 학생들은 좋은 학점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지만, 이 과목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지에 대한 기대 수준은 종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앙수업 적응 정도에 대한 인식은 그 수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학점과 만나 신앙수업의 학습 동기와 성취 수준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필수 신앙 교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수업 적응도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의 신앙수업 부적응 요인은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였으며, 그 이유로 불충분한 배경지식과 학습량이 두드러졌다. 학생들은 추가적인 학습 자료

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요청하였고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배운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둘째, 수업 적응과 실제 학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학생들에게 제공한 수업적응 피드백은 학생들이 예상보다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수업 적응 수준, 예상 및 실제학점은 모두 그리스도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필수 신앙수업에 비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소수자로 참여하고 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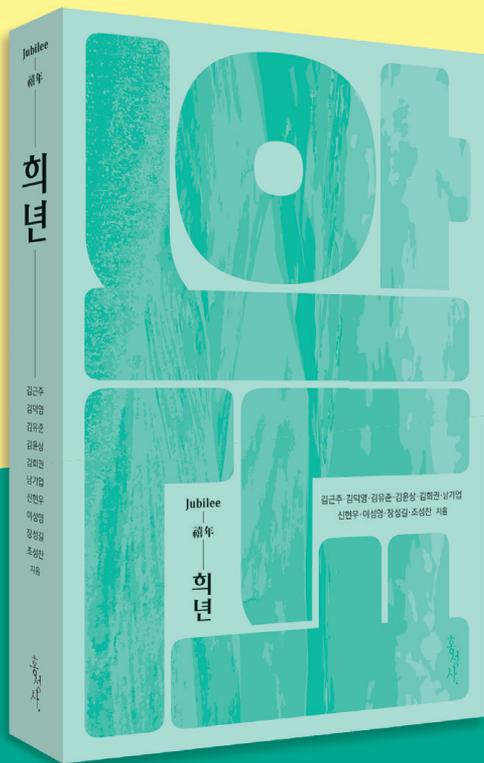
이 연구는 학생 스스로가 학습과 관련된 내재적 동기, 특히 학업성취의 기대 요소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독교 대학의 신앙교육은 학생 스스로 어떤 삶의 목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성찰하고 내면화 하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에서 개설하는 필수 신앙교과목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신입생 모두에게 지적 도전과 정서적 기대가 되어야 하며 이들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물리적, 인지적 차원의 구별된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2019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교수/일반부 '교육 B 분과' 발표논문이며, 전체 본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10인의 전문가가 함께 쓴
희년사상의 모든 것!

남기업 외 9인 지음
392면
무선
15,000원



희년

Jubilee
—
禧年

희년은 기쁨의 해로서 나팔(요벨)을 불어서 그것의 도래를 알릴 만한 가치가 있는, 50년 주기의 자발적인 사회변혁적 축제절기였다. 하지만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 그것의 도래를 알릴 만한 보편적인 기쁨의 해는 아니었다. 희년 절기는 가난한 자 중심의 축제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감동되어 있지 못한 부자들과 지주들은 나사렛 회당의 지주들처럼 예수님의 희년 도래 선포에 거세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희년의 목표는 어떤 이유로든지 파산되어 생존 경계선 밖으로 추방당한 자들을, 계약공동체를 지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수혜자로 재활복구시키는 것이었다. 희년은 법제화된 신적 친절과 자비였던 것이다. - '1. 희년과 하나님 나라'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위하여

— 함께하는교회 복음세계관 아카데미



임대환 (함께하는 교회 목사)

‘복음세계관 아카데미’는 충주 함께하는교회(기성, 이동명 담임목사)에서 2018년 12월부터 기독교세계관 교육센터(CTC, 유경상 대표)의 동역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는 담임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복음세계관 사역팀’(팀장: 이철호 권사)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성경이 보는 대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역사는 짧지만 이미 아래와 같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었다.



입문과정

첫 번째 ‘복음세계관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7주 과정(2018.2~2019.2까지)으로 매주 2시간씩 진행되었다. 전체 주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으며, 유경상 대표(CTC)가 자신의 저서 <CTC 부모교사 세계관학교>를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약 120명이 수료하였다.



사역자반

사역자반은 ‘복음세계관 아카데미’ 입문과정의 후속프로그램이다. 입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12주 과정(2019. 3~6월까지)으로 개설하여 진행하였다. 기독교세계관의 확장과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한 자원을 양성하려는 목적이었다. 인도는 유경상 대표(CTC)가 자신의 저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 지도자 매뉴얼>을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심화 과정

심화과정 역시 ‘복음세계관 아카데미’는 입문과정의 후속프로그램이다. 입문과정 후속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이 세계관에 대한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기에 개설되었다. 12주 과정이며, 인도는 마찬가지로 유경상 대표(CTC)가 자신의 저서 <크리스천 씹기>와 <완전한 진리>(Nancy Pearcey)를 교재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유소년반

유소년반은 복음세계관 아카데미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다. 9주 과정(2019.6~9월까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는 본교회 임대환 목사 외 유소년교회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재는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유경상 CTC 대표)를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우선 유소년교회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빼놓고는 이 세계관 교육을 논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때문에 먼저 ‘복음세계관 아카데미’를 수료하였다. 앞으로 계속 ‘성품, 미디어, 꿈, 고전,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놓고 6학기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사랑의 이유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함께하는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성결한 신자로 세워 하나님, 사람, 자연을 사랑하게 한다"입니다. 저는 이번 '복음세계관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이 선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CTC) 유경상 대표님의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은 신앙과 일상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영광 : 우선 '창조-타락-구속'에서 '창조'는 모태 신앙인인 제 자신에게 이 개념을 새롭고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동안 가장 중요한 믿음은 제가 죄인이고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고 강요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창조'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서, 복음이 너무 자연스럽고 쉬운 개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만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래 그 세상은 '샬롬'의 장소였습니다. 배움을 통한 이러한 깨달음은 전보다 더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좀 더 편안하고 쉬워졌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둘째, 이웃 사랑 : '기독교세계관'의 주요 개념과 기준을 배우게 되니 이웃 사랑에 대한 생각도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이웃사랑 개념은 마치 제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되니 나의 물질, 지식, 재능 등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고, 더 겸손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나눔의 기쁨 역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터에서 해마다 하던 '사랑의 점심 나누기 동전 모이기'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세상 돌봄 :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는 관점은 환경과 자연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환경 보호를 단순히 후손을 위한 배려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안하는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행동들이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일임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그저 누리는 것 뿐 아니라 그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결과 저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 세상 돌봄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글쓴이 라소영

충주 '함께하는 교회' 집사이다. 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숙명여대 영유아교육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9년 이사회(2차) 개최

일시 : 2019년 7월 30일(화) 저녁 7:00~9:00

장소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파인홀

참석 : 이사(손봉호, 신국원, 유재봉, 양승훈, 조성표, 장수영, 정희영), 감사(박문식, 최현일), 실행위원장(박동열), 사무국장(석종준)

등재 학술지 <신앙과 학문>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 자격 유지 심사 절차 진행 중(2019년 10월 중 결과 발표)

발간 예정 : 9월 30일(2019년 3호), 12월 30일(2019년 4호)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19년 10월 26일(토)

장소 :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 호암관(잠정)

주제 : '생태, 환경, 그리고 교육'

* 특별강연: 프레데릭 로농(Frédéric Rognon,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종교철학 교수)

내용: 대학원생부 분과별 논문발표회, 주제강연과 패널토의, 교수일반부 분과별 논문발표회

후원: 성균관대학교, 새로남교회

제3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개최 안내

주제 : '기독교세계관으로 바로 살기'(제3회; 제1회: 2016, 제2회: 2017)

일시 : 2020년 1월 초 장소 : 삼일교회(잠정)

주최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라브리>(성인경 대표) 공동 주최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김성수(前 고신대 총장) 김승욱(중앙대 교수)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카나이 대표)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규(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문준호((주)렘퍼스 이사)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손병덕(총신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교 교사)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윤현준(서울대연구원)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문석윤(경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이호선(국민대 교수)

총무 이상무(평택대 교수)

감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임춘택(경남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손병덕(총신대 교수)

편집위원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손창민(University of Virginia Tech 교수) 우종학(서울대 교수) 윤매옥(한일장신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현은자(성균관대 교수) 현창기(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Paul Lim(Vanderbilt University 교수)



VIEW(전성민 대표)

- VIEW (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Worldview Studies in Korean (MA-WSK)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
졸업이수 학점: 54학점(2.5~3년)
- Graduate Diploma - Worldview Studies in Korean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
졸업이수 학점: 33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의 두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는 2019년 1학기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다양한 캠프와 특강을 진행하였다.

- **가정 사역** : <월드뷰패밀리아카데미>(기독교세계관 인문고전학교)는 1학기 동안 진행된 '기독교와 예술'(기독교 문화관) 공부를 잘 마무리했다. 2학기는 '기독교와 철학'이라는 주제로 철학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하는 훈련을 할 예정이다.
- **교회 사역** : 충주 함께하는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마다 열린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교육 세미나>가 종강되었고, 어린이세 계관학교는 방학 중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2학기는 '기독교 문화관'을 주제로 성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캠프 사역** : (사) 청소년선교햇불(황성건 대표)과 공동 주관으로 7월 22-27일 동안, 기독교세계관캠프(1차), 기독교문화관캠프(2차)를 진행하였다. 중고등 학생들에게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안내하는 훈련과 문화(영화) 속에서 다양한 세계관들을 분별하는 훈련들을 실행했다. 8월에는 '부모와 청년 자녀들이 함께 하는 세계관캠프',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문화캠프', '교사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교육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양성'을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출판을 꿈꾼다.

www.cupbooks.com 문의 : 02-745-7231

- **신간 제작** : <게리 토마스의 행복한 결혼학교>(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당신의 결혼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비결! 관계의 성장을 바라는 부부를 위한 풍부한 지혜와 진솔함으로 풀어낸 실제적 조언!
- **재판 제작** :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손봉호 지음) -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갈 때! 광대한 공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2018 세종도서 선정작.
<연애학교>(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아름다운 만남과 데이트를 꿈꾸는 이들의 필독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티머시 제닝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이 책의 사례는 모두 실화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뇌가 변하고 삶이 변했다.
<부부학교>(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부부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책!
<부모학교>(게리 토마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영혼도 함께 아름답게 빛어진다!
<일의 신학>(폴 스티븐스 지음 | 주성현 옮김) - 일에 대한 폴 스티븐스의 70평생의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역작!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일에 관한 모든 것.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9년 7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3,900,000	인건비	일반급여	5,780,000
	임원회비	480,000		기타급여	400,000
	일반회비	5,025,000		소계	6,180,000
	기관후원금	2,7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000,000
	월드뷰후원금	0		사무실관리비	0
	사무실후원금	0		통신비	106,250
	CTC후원금	70,000		우편료	0
	VIEW후원금	950,000		소모품비	145,000
	기타후원금	2,000,000		비품	0
	월보구독료	457,500		식비	0
	학술지원금	0		복리후생비	583,820
	세계관사역지원금	0		퇴직연금	0
	기타	450,000		컴퓨터	18,000
				교육비	0
		회의비		353,730	
		회계용역비		220,000	
		여비교통비		110,000	
		서무비		156,200	
		기타(지급수수료)		123,959	
	소계	16,082,500		소계	3,816,959
기타수입	일반이자	0	연구지원비	연구회연구지원	0
	법인이자	0		도서구입비	0
	법인세환급금	0		CTC후원금	69,950
	기타수입	0		VIEW후원금	982,800
	기금차입	400,000		학술지원금	0
	결산이자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예수금	310,600		10선컨텐츠	0
				소계	1,052,750
			출판(회지)	인쇄비	3,392,800
				발송비	593,940
				소계	3,986,740
		기타	웹진원고료	0	
			CUP기금적립	400,000	
			세금	4,980	
			잡비	22,000	
	소계		710,600	소계	426,98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학회행사수입	0		학회장소사용료	0
	자료집판매	0		학회자료제작비	0
	학회지판매	0		학회홍보및기타	0
	학술지심사비	350,000		학술지인쇄비	2,574,000
	학술지게재료	300,000		학술지발송비	710,600
	저작권료	0		학술지심사료	940,000
	학회기타수입	0		학회조교비	0
				학회기타	0
		소계		750,000	소계
당월 수입액		17,543,100	당월 지출액		19,688,029
전월 이월액		23,941,135	차월 이월액		21,923,976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셋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이지연, 이찬수, 장재수,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재,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웅,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재우, 김태영, 김혜창, 노승욱,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유종열,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구,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장현정, 7천5백 강찬진, 김재우, 김지현, 박상규, 방선기,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민창, 강은정, 고길현, 고선욱, 고용재, 고현경,곽정임, 권경호, 길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홍, 김남진, 김도형, 김동연, 김막미, 김민성, 김반석,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성범, 김상욱, 김상일, 김성경,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성호, 김세령, 김세중, 김수빈,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호, 김용석, 김윤권,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재민, 김재정, 김정오,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중원, 김종일,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진, 김혁, 김현숙, 김혜정, 김혜정, 김홍섭, 김효숙, 남선우,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모아론, 문제환, 박능안, 박동현, 박복애, 박승호, 박시운, 박영주,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백경은,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창민,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중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상형, 신성길, 신성만, 신은주,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오성호, 우현기, 유근호, 유경숙, 유기남, 유동준, 이상원, 이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황, 유치상, 유해우, 유현동, 윤명실,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지혜, 윤천석,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숙, 이경연, 이경직, 이권철, 이기섭, 이기훈,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상규,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선복, 이성근, 이성미, 이상수, 이상실, 이세정, 이세준, 이수연, 이순진, 이승엽,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의,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미, 이정기, 이정길, 이정욱, 이정일, 이종국,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춘성, 이혜리, 이행로, 이환일,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신지, 정경식,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지, 정용수, 정은희, 정이레,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선하, 조승희, 조영우, 조용현,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연우,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진우, 최한일,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수, 허선아, 허현, 홍구화, 홍대화, 홍정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용, 황성준, 황성연, 황세환, 황인경, 황혜숙, 1만4천 주성탁,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장상섭, 2만 David Han, 강용란, 강혜영, 김기현,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박계호, 박기모, 박혜경, 박홍식, 배성민, 백은석, 송찬호, 송태상, 안선자, 오성수, 오지희, 무시정, 우영미,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창우, 정경미,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2만2천5백 박성태,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나용근, 문석운, 문준호, 박상희,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배지연, 빛과소금교회, 서성록, 송인규, 송태현, 오익석, 이근호, 이은실, 임희욱, 정민,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우병호, 황에스더, 4만5천 조웅진, 5만 김종우, 김택호, 박정심, 서진희,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정은애, 조지혜, 하진호, 한윤식, 현은자, 6만 김초록, 석종준, 이원삼, 7만 박문식, 백영은, 최태연, 10만 손봉호, 손정엽, 신국원, 윤완철, 정수영, 장점연, 최현일 12만 소은희, 이상규, 조용호, 지상선, 15만 강상우 60만 정희영, 65만 양승훈, 240만 조성표

계 10,832,500원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고양제일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서로사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금성교회, 바울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주)이상네트웍스, 책기증 도서출판 흥성사

계 4,900,000원

전체 15,732,5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주)렘퍼스 이사,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장
	윤지혜	간사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유준



문준호



박동열



박영주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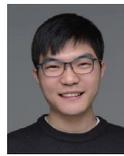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26 (토)
10:00 ~ 18:00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호암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he Roots and Challenges of the Ecological Crisis”

프레데릭 로농
스트라스부르대 교수, 종교철학

“생태계의 위기와 섭생의 문제”

김원중
성균관대 교수, 영문학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위한 생태교육”

노상우
전북대 교수, 교육학

패널토의 사회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산업경영공학

분과 발표논문 신청안내(대학원생부 & 교수일반부)

논문신청마감 : 9. 6(금)까지

▶ 홈페이지 : www.worldview.or.kr

요약본 마감 : 9. 27(금)까지, A4지(약 2쪽)

▶ 메일제출 : gihakyun@daum.net

논문제출마감 : 10. 11(금)까지, A4지(약 10쪽)

▶ 메일제출 : gihakyun@daum.net

***분야: 세계관, 생태, 철학, 경영, 경제, 교육, 과학, 문학, 예술, 복지, 상담, 동성애, 자크 엘릴 등**

*대학원생 논문은 심사 후 우수논문상(상금 50만원, 새로남교회 후원)을 시상합니다.

*마감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학회 참가신청
하러가기

주최 | 기독교학문연구회, 한국 로고스경영학회,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사교육혁신 교육연구소,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BK+ 교육인포매틱스 기반 글로벌창의인재양성팀

주관 |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후원 | 성균관대학교, 새로남교회

문의 | 02-3272-4967, 010-3222-6567(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09 + 10
SEP + OCT
2019 vol.2



특집

미래기술과 기독교세계관

청년, 삶을 고민하다 원자력 산업 및 기술에 대한 단상

문화로 세상 보기 시대의 도전에 직면한 미술가

은전한 지성 2019 춘계학술대회 주목할 만한 논문(II)



ISSN 2671-8731